

송중욱 광주은행장 ESG 경영철학·지역사회 포용금융 전파



1 광주은행 본점 2 송중욱 광주은행장

로 한 포용 금융과 생산적 금융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공공의 이익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지역사회와 공감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이 같은 노력이 결국 지속 가능한 광주은행의 100년을 설계하는 길임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지역사회에 녹색 바람 전파

지난해 12월 광주은행은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실현과 '광주형 AI 그

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광주은행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채권 인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광주광역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ESG 중심으로 기업 여신 등을 평가하며 지역의 녹색금융 확산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인 ESG 경영전략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강조하는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을 통한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라는 경영이념은 ESG 경영철학과도 많이 닮았다.

송 행장은 올해 첫 문을 여는 자리에서도 ESG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광주천 가꾸기 릴레이 봉사활동 발대식에 참여했다.

지역사회에 녹색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광주은행의 움직임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매년 광주은행이 개최하는 '녹색환경대상'은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지킴이들을 발굴하는 장이다. 광주은행은 이를 통해 지역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전환하고, 이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곳곳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민을 보듬는 포용금융

2019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희망 동반자가 되겠다는 포부로 광주은행의 설립 초심을 되새기며 1968년 창립 당시 본점으로 활용되었던 곳에서 첫발을 내디딘 포용금융센터에서는 지역 내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재무 조정 상담,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영컨설팅 제도를 확대·홍보하고 있다. 지난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공로를 인정받아 포용금융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은행권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 '프라임(Prime) 플러스론'을 출시했다. 디지털 금융 시장에 발맞춰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로 출시된 이 상품은 다양한 항목의 데이터 활용과 리스크 변별력이 확보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새로운 평가모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리스크관리 강화까지 이뤄냈다.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

지난해 광주은행은 코로나19로 지역에 닥친 위기를 지역민과 함께 이겨내고, 지역 상생발전을 이뤄내고자 전 임직원이 고군분투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마스크 3만개와 긴급 구호 성금 각 4억원, 3억원을 전달했다. 목포·순천·여수·나주에 1천만원씩을 전달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도 앞장섰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5억원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경영을 실천했다. 광주은행 자체 특별자금 지원도 했다. 여행업, 숙박업, 음식업 등을 하는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총 4천억원을 특별지원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2만1천633건, 9천240억원에 이른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해 ESG가 광주·전남 소재 기업을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100년 은행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①